
복막강 초음파검사의 유용성

황정득 내과의원

도진녀, 전득수

목 적 : 일차 선별검사로서 위장관 초음파검사 시 복막강 초음파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의뢰한 20~80대 연령의 모든 환자 700명을 대상으로 위장관을 검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복막강을 포함해서 초음파검사 할 때 탐색된 질병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위장관 자체의 질환과 위장관 질환에서 이차적으로 파급된 림프절이나 장간막 소견은 배제하였다. 또 실질장기 질환과 실질장기 질환에서 파급된 림프절이나 요관결석 등도 제외시켰다. 탐촉자는 4 MHz와 7.5 MHz를 사용하였으며, 복막강 전체를 검사하였다. 복막강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CT 촬영과 조직검사 그리고 염증성 질환일 때 특성상 치료후 재검으로 일차 초음파소견과 비교하여 경과 관찰함으로써 확진 하였다.

결 과 : 환자 700명 중에서 장간막 낭종 5예, 낭성중피종 1예, 충수돌기의 점액류종 2예, 결핵성 장간막 림프선염 1예, 대동맥류 1예, 그리고 장간막염 2예 등이 탐색되었다. 결핵성 장간막 림프선염은 조직검사로 확진 하였으며, 낭성중피종은 CT촬영, 그리고 장간막염은 치료 전후를 비교하여 확진 하였다.

결 론 : 복막강 질환은 1차 위장관 초음파검사서 부가적으로 관찰되거나 징후가 있어 적극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탐색되므로 복막강을 포함하여 검사하면 초음파검사의 유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